

선발 3명 총력전에도 대패... 롯데 '야속한 가을'

<5-15>

20일 안방경기서 키움에 무너져
에이스 감보아도 기대이하의 출전
3⅓이닝 9피안타 8실점 속수무책
5월 MVP·6월 ERA 1.72서 난조
불펜 약세... 남은 경기 첩첩산중



8월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감보아가 1회 말 헛치개 공을 던지고 있다.

너지고 만 것이다.

6월 5경기에서 5승 평균자책점 1.72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5월 KBO리그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감보아는 후반기 들어서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불펜 투수로 뛰었고 2022년 트리플A에서 단진 88⅓이닝이 종전 한 시즌 최다 투구였던 그는 이미 KBO리그에서 103이닝을 소화했다.

롯데로 오기 전,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단진 19⅓이닝을 더하면 122⅓이닝이다.

감보아는 "구단에서 철저하게 체력을 관리해줘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성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팔꿈치 통증으로 한 차례 선발을 건너뛰었던 그는 우려 속에 등판한 경기에서도 또 무너지고 말았다.

감보아 이후에 등판한 투수들도 키움 타선을 버티지 못했다.

후반기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벤치가 마구잡이 식으로 기용했던 박진은 ⅓이닝 2실점으로 피로한 모습을 여실히 노출했고, 시즌 중반까지 선발진을 지켰던 이민석은 10이닝 2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불안했다.

또한 후반기 롯데의 추락을 상징하는 대체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는 1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롯데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데려온 벨라스케즈는 8경기 1승 4패에 평균자책점 11.22다.

이제 롯데가 남겨둔 경기는 NC 다이노스(23일 울산), 삼성(24일 대구), LG 트윈스(25일 부산), 삼성(26일 부산), 두산 베어스(28일 잠실), SSG 랜더스(29일 인천), 한화 이글스(30일 대전)까지 7번이다. 중간에 휴식일은 27일 하루뿐이라 선발 투수가 최소 5명은 필요하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꿈을 넣은 후 포효하는 조규성. 미트윌란 SNS 캡처

무릎 부상 '홀홀' 미트윌란 조규성 두 게임 연속 골

무릎 부상을 떨쳐 내고 돌아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이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며 재기의 신호탄을 쏘았다. 미트윌란은 21일(한국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수페르리가 9라운드 홈 경기에서 비보르에 2-0으로 완승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한 조규성은 팀이 1-0으로 앞섰던 추가 시간 6분 췌기골을 터트렸다.

조규성은 스로인을 받아 골 지역 왼쪽에서 공을 잡고 왼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18일 2025-26 덴마크축구협회컵(덴마크 컵) 3라운드 올보르BK와의 원정 경기에서 1년 4개월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 시즌 공식전 2호 골이다.

지난해 5월12일 오르후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조규성은 2023-24시즌을 마치고 평소 불편했던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증이 발생해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재활에만 몰두했다. 6라운드 실케보르를 상대로도 8분기량 뛰고 7라운드 브린뷔전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본 조규성은 8라운드 노르셀란전에서 1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왔다.

33분 만에... 안세영 中 마스터스 2연패 '강스매싱'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사진)이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안세영은 21일(한국시간) 중국 선전의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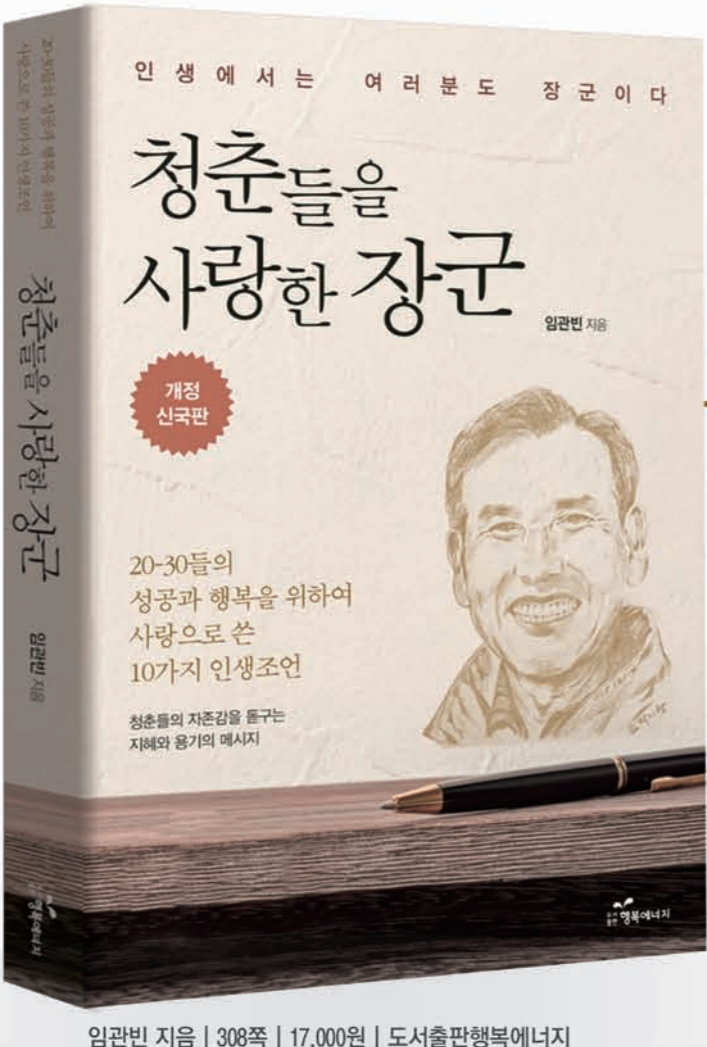
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 한웨이(중국)를 2-0(21-11 21-3)으로 제압했다. 경기 시작 33분 만에 연어년 완승이었다. 안세영은 별다른 위기 없이 두 게임을 빠

르게 마무리했다. 1게임 초반 1-1 동점에서 점차 격차를 벌리며 손쉽게 게임을 마무리한 뒤 2게임에서는 초반 8점을 연속으로 따낸 뒤, 이어서 9점을 추가로 쓸어

담으며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을 비롯해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등 슈퍼 1000 3개 대회를 석권했고, 슈퍼 750 대회인 인도오픈과 일본오픈, 슈퍼 300 대회인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